공공디자인, 운동에서 제도로.

정강화 / 건국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2005년 12월, 공공디자인학회가 창립하여 어느덧 1년 반이 되려고 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다른 선배 학회나 협회에서 보면, 아직 햇병아리 주제에 벌써 라는 표현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지내온 학회 구성원 가운데 한사람으로 생각해볼 때 절대 무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국회공공디자인문화포럼만 하더라도 오는 5월29일 아침에 열리는 세미나로 벌써 7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항상 100여명 이상이 참석하여 열기를 발산하는 광경에 국회의원자신들도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에 바로 '공공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이슈가 성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학회를 만들고 또 국회 안에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동을 해 온 것이 오늘날 공공디자인이 커다란 우리 디자인계의 화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문제들이 전문가들의 수준에서 만 거론되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 이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들은 우리 기업들이 만든 아름답고 훌륭한 세계적인 수준의 사적인 디자인을 소비하면서, 한편 공공에서 만든 형편없는 디자인들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 왔다는 것이, 아니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학회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혹은 전문가들의 뜻을 모으는 방향으로 공공디자인 '운동'을 전개해 왔다.

앞서 말한 국회공공디자인문화포럼,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 특강연사를 파견하는 방식, 공공디자인대상전, 공공디자인선진국투어, 또 10월에 개최될 공공디자인EXPO등 다양한 시도는 모두 공공디자인 확산 및 홍보 운동이다. 모두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민주주의적 실천방향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정책결정자들의 결정도 중요하지만이는 공공디자인이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가 혹은 사장이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바탕부터 여론이 만들어지고 위아래,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생각의 온도차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운동이 정책과 제도로 움직이는 데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이는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

어진 성과라 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올바른 사회적 책임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디자이너가 중심이 아닌, 행정가나 엔지니어의 손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어 왔고 그러다보니 기업의 선행디자인처럼, 디자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업(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부분에서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요리로 이야기하면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요리를 만들어야하는데 요리사가 아닌 영양사, 조리사가 주도하는 디자인이 지금까지 공공에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요리의 세계를 단순화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맛'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제도권 속으로 디자인의 문제가 논의되는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운동'에서 '제도'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물론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도가 되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공공디자인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디자인의 문제를 법적인 제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후진성을 대변해 주는 창피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여러 가지 왜곡된 상황을 타개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디자인은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이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디자인이며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공공디자인학회 창립선언문(오창섭)과 같이 우리는 보다 더 사회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단지 멋있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표피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며 실내디자인학회의 주요 관심사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격(格)이 있는 공간, 풍류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옛 조상들의 조영사상에서도 잘 배울 수 있는데, 집을 짓는 행위가 단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었는가? 하는 점 하나만 보더라도 공간의 위계와 질서, 가치를 담아내려던 시도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 문화적인 논리에 우선해서 접근해야만 하는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교량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100년, 200년의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시대의 가치를 올바로 담아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라 믿고 싶다. 공공디자인 운동이 제도적 장치에 걸려 중요한 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